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26호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백화점
크리스마스 새단장
연말 경쟁 돌입
L1

HK이노엔
의료기기 시장
첫 진출
L2



희망의 빵 나누고, 안부 살피고… 이웃 향한 '따뜻한 항해'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Sh수협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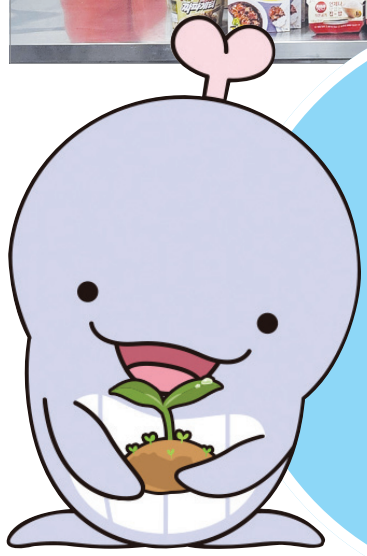
임직원 빵 직접 구워 소외이웃에 전달
아동복지시설·무료급식소 등에 온기를

8년째 이웃에 쌀·라면 등 생필품 지원
지역사회 살피고, 이웃과 온정 나눠

돌봄 어르신과 1:1 결연 맺고 안부 확인
노년층 '숨은 자산 찾기' 금융지원도

임직원 헌혈 '생명나눔 캠페인' 이어가
혈액암 환우·가족에 따뜻한 위로 전달









1 서울공덕금융본부 임직원들이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용산봉사나눔터에서 '희망나눔 베이커리' 봉사활동에 참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 김수경 Sh수협은행 DT본부장(왼쪽)과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이 지난 4월 '사랑잇는전화' 사업 업무 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3 Sh수협은행 임직원이 지난 4월 열린 '봄날의 따뜻한 나눔 사랑해 헌혈' 캠페인에 참여해 헌혈을 진행하고 있다.

/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이 '더 나은 미래로 항해하는 지속가능은행'이라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비전 아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항해에는 청소년부터 어르신,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까지 다양한 이웃이 함께한다.

생명을 살리는 헌혈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생필품 나눔, 환경을 지키는 플로깅과 미래세대를 위한 ESG 교육까지 활동의 범위도 폭넓다. 수협은행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온기를 전하고, 미래세대에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가치를 공유하며 상생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 구운 빵으로 따뜻한 마음을

수협은행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희망나눔 베이커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희망나눔 베이커리 사업은 임직원이 빵을 직접 구워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기존 개인 단위 참여 방식에서 올해 전국 19개 금융본부 단위로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수협은행은 올해 총 15차례 희망나눔 베이커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임직원들이 올 한 해 직접 구워 이웃에게 전달한 빵만 1000개가 넘는다.

가장 최근 소외계층을 위해 빵을 구운 곳은 Sh수협은행 서울공덕금융본부다. 서울공덕금융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14명은 지난달 약 4시간에 걸쳐 빵 250개를 만들어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서울마포금융본부 임직원 11명이 14번째 희망나눔 베이커리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약 4시간 동안 정성껏 구운 빵 430개를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3월 초에는 압구정금융본부 임직원들이 빵 400개를 만들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까리따스 수녀회'에 전달했다.

◆ 생필품에 담은 이웃사랑

수협은행의 이웃사랑은 빵 나눔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사회 이웃사랑 생필품 나눔'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밀착형 상생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지역사회 이웃사랑 생필품 나눔 활동은 지난 2019년부터 8년째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이다. 영업점이 주민센터 혹은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해 쌀, 라면, 휴지 등 생필품을 지원한다.

올해는 광교금융센터, 여의도종합금융본부 등 104개 영업점이 자발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했다. 연말까지 더 많은 영업점이 나눔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수협은행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금융기관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책무로 삼고 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겠다는 취지다.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은 "수협은행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지역사회와 고객에 있다"며 "전국의 영업점 임직원이 함께 힘을 합쳐 동네 이웃들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것은 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 돌봄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나눔

수협은행은 지난 4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사랑잇는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잇는전화는 수협은행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원과 돌봄 어르신이 1:1 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민관 협력 프로그램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고독사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르신들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안부 전화뿐 아니라 은행의 전문성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숨은 자산 찾기' 등의 금융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예방법과 대응 방법 등 금융 정보를 제공해 노년층의 경제 권익 보호에 나선다.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사회망 구축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생명나눔 실천도

수협은행은 24년째 '봄날의 따뜻한 나눔 사랑해 헌혈' 행사도 이어오고 있다. 봄날의 따뜻한 나눔 사랑해 헌혈 행사는 Sh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생명나눔 캠페인이다.

올해 초 열린 생명나눔 캠페인에는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헌혈을 진행했다. 누적된 헌혈 참여 인원은 2268명이다. 모인 혈액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생명에게 기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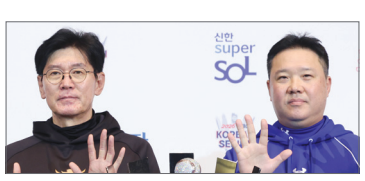
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희망을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추석 명절에는 한국혈액암협회를 찾아 10kg 쌀 250포도 기부했다. 이번 후원은 장기간의 치료와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혈액암 환우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정서적 위로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문옥 Sh수협은행 수석부행장은 "앞으로도 수협은행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장우진, 한국 선수 첫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챔피언스 탁구 우승
▲KT 대니엘 vs 삼성 최원태, KS 1차전 선발 맞대결
/사진 뉴시스

▲박항서 감독에 "김치맨"…태국 프로축구서 인종차별 논란
▲국내 골프 인구 581만 명…2년 동안 43만 명 줄었다

▲K리그1 FC안양 조직 개편…이우형 안양 단장, 테크니컬 디렉터로
▲28억 김환기부터 포켓몬 카드까지…서울옥션, 2주간 '옥션쇼'